

“대통령님 이 책들은 꼭 읽어주세요”



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에서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주관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서재전’이 열렸다. 대통령 서재 특별 부스. /연합뉴스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출판협회 광화문서 정책 제안 행사 대통령에 추천 도서 100권 전시도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는 독자가 인이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책임기는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매개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정권의 탄핵과 일련의 불행이 인문학의 부재와 사유의 빈곤에서 도래했다는 부정적 비판이 제기된 터라, 책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덕목으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과 저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인데 꼭 다 읽는다. 그것이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인 ‘2017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과 내외의 책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출판 독서 단체와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책과 정책을 제안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문화협회)는 2일 서울 세종로공원 내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위축됐던 출판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출판문화의 활성화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행사에는 강원국 작가, 노혜경 시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김세나 북카페 세렌비피티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출판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한 추천도서와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추천한 책과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3시부터는 밀리의 서재가 주관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서재전’을 오픈, 출판사와 각계인사 20인,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대통령 추천도서 100여

■출판문화협회 선정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하는’ 주요 도서



로봇시대, 인간의 일



미국의 반지성주의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82년생 김지영

종을 전시해 현장을 찾은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앞서 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90여개 출판사로부터 자사와 타사의 책 각 1권씩을 추천받았다. 그 결과 ‘로봇시대, 인간의 일’(어크로스), ‘미국의 반지성주의’(교유서가), ‘삼성 독재-삼성권력 80년, 민주주의를 지배하다’(빨간 소금), ‘한국 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역사비평사),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교양인), ‘82년생 김지영’(민음사) 등이 복수 추천을 받았다.

많은 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인 구분권 디지털 인문학자는 로봇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맞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책에는 로봇혁명이 재현할 직업의 미래, 대학의 몰락과 새로운 지식의 구조 등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마주하게 될 상황이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저명한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미국의 역사를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현대 지성사의 고전이다. 미국의 건국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문학 등을 소재로 삼는다.

책은 미국인의 삶에서 지성에 쏟아지는 열시를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세력인 지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일 수 있는가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다. 저자는 대표적인 매카시즘을 반공주의를 표방한 대표적인 반지성주의로 꼽았다.

“한국 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은 ‘환단고기’를 비롯한 역사책들의 맹점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사료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상황 등 ‘사이버역사학’의 민낯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젊은역사학자모임’은 일부 역사가 정치와 연계되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왜곡이 대중들에게 점차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책을 집필했다고 주장한다.

성 문화 연구 모임 ‘도란스’가 펴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는 당대 한국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여성 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저자들은 남성의 현재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남성다운 몸·심리·문화는 현실이 아닌 규범이자 신화라고 역설한다.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여자의 인생 현장 보고서”라는 평가가 따른다.

조남주 작가는 1982년생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을 축으로, 고백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와 기사들을 다룬 축으로 삼아 30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그려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포크음악 사직통기타거리 부활한다

7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서 포럼

광주포크음악의 흐름을 재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특별포럼이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 남구가 주최하고 광주사직통기타거리조성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다.

광주포크음악의 흐름을 재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특별포럼이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유하 교수(전남대 5·18연구소)의 ‘광주 지역의 대중음악인 활동사 연구’ 발제를 바탕으로 국소남(가수), 박문옥(가수), 남유진 팀장(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여군수 논설주간(광남

일보)이 토론을 진행한다.

‘광주 포크음악 아카이빙을 위한 특별포럼’은 1970~1980년대 광주 포크 음악사를 인물별, 이 슈별로 정리할 예정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사직통기타거리에 스트리트 뮤지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사직통기타거리조성사업은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시비 등 1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1980년대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였던 광주 사직 통기타거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광주 남구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문의 062-675-3331.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가족극 ‘작은 악사’ 내일 무안서 무료 공연

전남문화관광재단은 4일 오후 7시30분 무안 남도소리유폴터에서 어린이 관객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가족극 ‘작은 악사’를 무료로 선보인다.

‘작은 악사’는 우즈베키스탄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끼모비치’의 그림책 ‘작은 악사’를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시아문화원과 브러쉬씨어터가 공동으로 창작했다.

공연은 따돌림 악사인 주인공 모비치가 얼마처럼 따뜻함을 선물하는 햇살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사람 사이의 정과 가족의 의미를 담았으며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무대와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배우들이 직접 연기와 소품을 이용해 바람, 그림자 등 자연현상을 재현하면서 대사보다는 움직임과 분위기 중심으로 공연을 선보여 어린이 관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까지 국내 국립·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남도소리유폴터에서 다양하게 선보인다. 서울지연의 ‘비바’(8월 15일), 한소리의 ‘현제와 그레텔’(9월 19일)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단체예약 및 기타사항은 남도소리유폴터(061-981-0280)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영상위, 제작지원작 ‘슬픈결혼사진’ 등 15편 선정

(사)광주영상위원회는 지난 28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2017 광주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 심의를 개최, 모두 15편의 작품을 지원작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다양성영화(광주지역 내에서 제작되는 다큐,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영상물) 부문에서 ‘슬픈결혼사진’ 등 12편을 선정했다.

또 상업영화 부문에서는 ‘1987’, ‘물괴’, ‘메소드’ 등 3편을 뽑았다. 이 중 CJ E&M이 제작투자한 ‘1987’은 1987년 사랑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특히 영상위는 제작사 우정필름과 협의, 영화 클라이막스에 사용될 메인 테마곡을 광주시립합창단 등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100여명 규모의 합창단과 진행키로 하고 현재 시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작사 측도 ““세계적인 민주도시”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들 목소리로 만들어진 합창곡은 할리우드 전문 엔지니어팀을 광주로 불러 녹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는 차두옥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2003년 창립된 (사)광주영상위원회는영상작품의 촬영을 유지하고 허가하는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광주시내 및 광주권 인근 지역에서의 촬영을 희망하는 제작사의 현지 로케이션 및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원작은 ‘백시온 전사’, ‘육자’ 등이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추장등 전발효
그리고 흑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금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